2017년도 하반기 정기 심포지엄

종교문화로 보는 한국 기독교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그동안 한국에서 기독교가 어떤 의미를 지녀 왔는지,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심포지엄의 개최 목적도 이런 문제의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기독교와 한국사회의 현재적 관련 양상에 주목하여 종교개혁 500주년이 한국 기독교 연구에 어떤 성찰을 마련해 주고 있는지 살피고자 하는 것이 심포지엄의 목적이다. 접근 방식은 그동안 흔히 거론된 관점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종교문화'의 하나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한국 기독교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혐오담론, 혼합주의(syncretism) 혹은 혼합현상, 민속적 인지과정, 그리고 정교분리의 수사학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종교문화비평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한편으로 한국 기독교를 "은총"으로 정당화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기독교가 예수의 참된 가르침에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고발하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심포지엄은 이 두 가지 주장의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사회와 한국기독교의 밀접한 연관 관계를 새로운 시각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을 부각시키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한국기독교를 연구하는 태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학적 정당화와 예언자적 비판 모두를 극복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연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통계자료의 나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즉 하반기 심포지엄의 발표자가 지닌 공통된 문제의식은 그동안 한국 사회와 기독교의 관계를 다루어왔던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이런 검토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하반기 심포지엄의 존재 이유이자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 개신교의 혐오 담론을 다룬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 팽배한 '혐오' 이슈와 관련해 한국 개신교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이론적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의 혼합현상을 다루는 두 번째 발표는 혼합현상에 대한 일방적(부정적, 긍정적) 판단이 전제된 이전 연구를 비판하고, 종교문화간의 만남에 대한 현상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혼합현상에 관한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 번째 발표는 그동안 기복적이거나 미신적인 신앙 양태라고 하여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온 기독교 샤머니즘, 기독교 민속론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짚어 보고, 다른 종교와의 습합이나 미신적 신행 양태로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인지종교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서술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 발표의 기본 관점은 "정교분리를 규범으로 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교분리 자체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교분리원칙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공사 이분법'자체를 문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주

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헤게모니 유지와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뗄 수 없이 얽혀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한국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연구는 민감하기도 하고, 상투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하다. 흔한 것은 기성(旣成) 기독교를 정당화하거나 예수의 가르침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작업은 기독교 신학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기독교를 '종교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한종연이 마련한 학술의 축제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

2017. 11.

종교문화로 보는 한국 기독교

1. 일시: **2017년 11월 18일(토)** 오후 1시 30분
2. 장소: 서울약사신협 5층 대회의실(봉천동)
3. 주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비교문화연구소 공동주최
4. 주관: 종교문화비평학회

6. 발표순서

13:30~13:50 개회 및 개회사

사회: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13:50~14:30 제1발표

혐오와 종교문화: 한국 개신교의 사례

발표: 구형찬(한국종교문화연구소)
논평: 정시우(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14:30-15:10 제2발표

혼합현상에 대한 이론적 성찰

발표: 방원일(서울대학교)
논평: 김형석(경상대학교)

15:10-15:20 **중간휴식**

15:20-16:00 제3발표

한국 기독교 민속신앙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발표: 심형준(한신대학교)
논평: 안연희(선문대학교)

16:00-16:40 제4발표

한국 개신교와 정교분리의 수사학

발표: 이진구(한국종교문화연구소)
논평: 윤승용(한국종교문화연구소)

16:40-16:50 **휴식 (장내정리)**

16:50-17:50 **종합토론** 사회: 조현범(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요지>>

1. 혐오와 종교문화: 한국 개신교의 사례

구형찬(한국종교문화연구소)

‘혐오’가 전지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성소수자, 외국인, 여성(혹은 남성) 등에 대한 거부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근래에 이는 흔히 ‘혐오’라는 용어를 통해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혐오’ 이슈를 둘러싸고 한국의 개신교가 종종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종교문화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팽배한 ‘혐오’ 이슈와 관련해 한국 개신교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이론적 모델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혐오 이슈들과 혐오 담론의 역사를 개괄하고 그 양상을 분류한다. 둘째, 혐오 이슈들에 대해 취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계의 상이한 태도들을 개관하고, 어떤 이슈들이 특별히 주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현실을 한국 개신교 내부의 논리를 넘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진화-인지적 관점을 도입해본다. 이러한 논의는 혐오 이슈 속에서 종교적 규범이 동원되고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주장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혐오 이슈 속에서 종교적 규범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도구에 가깝다. 즉, 명시적인 종교적 규범은 사람들이 혐오 이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편리하고 부차적인 근거로서 호소력 있게 작동한다.

2. 혼합현상에 대한 이론적 성찰

방원일(서울대학교)

종교개혁 이후 신크레티즘(syncretism)은 불분명한 종교적 정체성을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 한국 종교계에서도 혼합주의로 번역되어 부정적인 함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이 용어의 경멸적 의미를 넘어서기 위해 인류학과 종교학의 용어 사용의 역사와 최근의 성과를 개관한다. 혼성성의 창조적 가치에 주목하는 최근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신크레티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문화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학문적 용법에서 신크레티즘을 혼합현상으로 번역함으로써 기존의 담론으로서의 혼합주의를 넘어선 개념적 도구의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국기독교를 서술하는 개념으로서의 가능성도 모색한다.

3. 한국 기독교 민속신앙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심형준(한신대학교)

민속신앙이라 하면 비엘리트 대중의 기복적이거나 미신적인 신앙 양태 혹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대적이고 토착적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기독교 민속신앙'이라고 하면, 기독교 샤머니즘, 미신적 기독교, 토착신앙과 습합된 기독교 등의 모습을 논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folk belief'(민속신앙)를 인간의 인지체계의 제약으로 작동하는 마음의 직관과 추론에 따라 쉽게 획득하게 되는 자연적 지식, 예를 들어 folk biology, folk physics, folk psychology에 의해 쉽게 기대되는 관념과 실천으로 이해한다면, 앞의 설명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기독교 샤머니즘, 기독교 민속론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짚어 보고, 다른 종교와의 습합이나 미신적 신행 양태로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인지종교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서술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한국 개신교와 정교분리의 수사학

이진구(한국종교문화연구소)

정교분리는 현대사회의 기본 규범이자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종교 혹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헌법에 명기된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 여기에는 종교는 사적 영역에 속하고 정치는 공적 영역에 속한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전제에 입각하여 사적 영역에 속하는 종교가 공적 영역인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공적 기관인 국가가 사적 영역인 교회를 통제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런데 종교와 정치를 각각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배치한 뒤 양자의 관계를 논하게 되면 구체적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종교의 정치화'나 '정교유착'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교분리원칙을 내세워 이러한 현상을 법적 혹은 도덕적 측면에서 비판하는 차원에 머물기 쉽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좀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교분리를 '규범'으로 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교분리 자체를 '문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분리원칙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공사 이분법' 자체를 문제화해야 한다. 공사이분법에 의해 종교가 사적 영역, 정치가 공적 영역으로 분리,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서구 근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등장한 공사이분법을 '관용' 담론의 출현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특히 '관용론'이 주류 기독교와 어떠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민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정착하는가에 주목한다. 이어서 개항 이후 한국사회에 출현한 정교분리 담론이 국가권력과 주요 종교집단에 의해 어떻게 전유되어 왔는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사회에서 주류종교인 개신교의 헤게모니 작동이 정교분리의 수사학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79-24 // Tel. 02-874-8288

☆ 지하철 :

2호선 낙성대역 5번출구 직전 300M

☆· 버스

간선(파란색): 461, 641, 643, 650, 8541 지선(초록색): 5413, 5520, 5524, 5528

일반: 9, 9-3 정류장번호(낙성대입구): 21123번, 21122번, 21164번

